



중소 환경기업에 온라인 수출마케팅 지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환경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출마케팅을 지원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약 195억 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온라인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주요 환경박람회 현장 사이버 무역전시관 개설, 해외 유수의 기업 간(B2B) 시장을 통한 홍보, 전문가를 통한 밀착형 무역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지난 3년간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체는 모두 150여 곳으로, 이들은 신규바이어 531명을 발굴하고 약 1,500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을 실시했다.

그 결과, 14개 기업이 195억 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얻었다.

일례로 수도권지 생산업체인 (주)다다는 이 지원 사업을 통해 베트남에 32억 원 규모의 제품을 수출하는데 성공하는 등 사업 범위를 해외로 확장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환경산업기술원은 해외 환경박람회에 참여해 'Korea e-Trade Show'라는 명칭으로 사이버 무역전시관을 개설하고 국내 제품을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했다. 프랑스,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에서 7회에 걸쳐 개최된 해외 전시회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해외 현지에 소개하는 무대를 제공했다.

특히, 박람회 현지와 화상통화 시스템을 갖추고 국내에서 현지 바이어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기회도 마련했다.

또한, 지원 대상 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국내 최대 환경

※ 사이버 무역 전시관 개설 현황(최근 3년)

구분	전시회명	일정	장소	주요 성과
2010년	산동성 녹색산업박람회	7.3~5	중국 청도	바이어 61명 발굴 159억 무역상담
	인도네시아 수처리환경전	7.28~30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바이어 57명 발굴 191억 무역상담
2011년	하노이 환경에너지산업전	5.25~28	베트남하노이	바이어 79명 발굴 176억 무역상담
	인도네시아 수처리환경전	7.14~1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바이어 120명 발굴 205억 무역상담
2012년	하노이 환경에너지산업전	5.23~26	베트남하노이	바이어 64명 발굴 210억 무역상담
	싱가포르 국제수처리환경전	7.2~4	싱가포르	바이어 70명 발굴 264억 무역상담
	프랑스 국제환경박람회	11.27~30	프랑스 리옹	바이어 80명 발굴 280억 무역상담

전문 무역중개 웹사이트인 에코트레이드와 중국의 알리바바 등 주요 기업 간(B2B) 시장에 등록해줌으로써 등록비도 절감하고 전 세계 바이어를 상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뿐 아니라 환경산업기술원은 무역 전문가를 참여시켜 바이어 신용조사와 거래 협상, 수출 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실제 수출 계약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후속 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3월 지원 대상 기업 30개를 선정하고 2013년 온라인 수출마케팅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환경박람회에 사이버 무역전시관을 개설해 운영했으며, 앞으로도 기업 간(B2B) 시장에 등록과 밀착형 후속 무역관리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K)